

## [KAOS CODEX] 수험생 공부 DNA 해독 결과

### STI SPI STE SPE

냉철한 시스템 설계자

섬세한 완벽주의자

원칙적인 정석 정복자

실용적인 트렌드 추종자

### XTI XPI XTE XPE

통찰적인 효율 전략가

감각적인 직관 탐구자

거침없는 실행 중심가

유연한 아이디어 탐험가

#### 1. STI - 냉철한 시스템 설계자 (별명: 깐깐한 팩트폭격기)

"정답은 오직 완벽한 논리의 끝에만 존재한다."

- **공부 DNA:** 지문의 모든 문장을 인과관계로 연결해야 직성이 풀리는 타입. 비문학 독서 지문에서 강점을 보입니다.
- **수능 망하는 이유:** "과도한 의심." 정답이 너무 명확하면 "평가원이 이렇게 쉽게 낼 리 없어"라며 혼자 함정을 파고 들어갑니다. 결국 1페이지에서 시간을 다 쓰고 뒷장을 날립니다.
- **KAOS 쳐방:** 당신의 정교한 뇌를 낭비하지 마세요. \*\*[KAOS 역공학 설계법]\*\*으로 출제자가 숨겨둔 '정답의 최소 근거'만 찾는 훈련이 시급합니다.

#### 2. SPI - 섬세한 완벽주의자 (별명: 바스락 개복치)

"한 번 꼬이면 끝이다. 평정심이 곧 점수다."

- **공부 DNA:** 높은 기준과 섬세한 감각을 지녔습니다. 컨디션이 좋을 때는 누구보다 깊이 있게 지문을 장악합니다.
- **수능 망하는 이유:** "멘탈 붕괴." 모르는 단어 하나, 옆 사람의 다리 떠는 소리 하나에 사고 회로가 정지됩니다. 국어 1번이 안 풀리면 이미 머릿속으로는 재수 학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 **KAOS 쳐방:**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KAOS 기계적 풀이 루틴]\*\*을 장착하세요. 머리가 아닌 '손'이 먼저 반응하게 만들어 어떤 위기에서도 점수를 뽑아내야 합니다.

#### 3. STE - 원칙적인 정석 정복자 (별명: 인간 FM)

"배운 대로만 나오면 다 맞힐 수 있다."

- **공부 DNA:** 성실함의 끝판왕. 오답 노트와 계획표가 세상에서 가장 깔끔하며, 정

석적인 풀이법을 완벽히 체득하려 노력합니다.

- **수능 망하는 이유:** “응용력 부족.” 지문이 조금만 낯설게 변형되어 나오면 “이건 배운 적 없는데?”라며 당황합니다. 유연성이 부족해 ‘신유형’에 매우 취약합니다.
- **KAOS 처방:** 정석을 넘어선 \*\*[KAOS 패턴 변형 로직]\*\*이 필요합니다. 어떤 변형이 오더라도 관통하는 ‘단 하나의 원리’를 깨우쳐야 합니다.

#### 4. SPE - 실용적인 트렌드 추종자 (별명: 프로 팔랑귀)

“좋다는 건 다 해본다. 정보력이 곧 경쟁력이다.”

- **공부 DNA:** 최신 인강, 유행하는 문제집 정보를 누구보다 빠르게 습득합니다. 학습 도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 **수능 망하는 이유:** “뿌리 없는 공부.” 이것저것 찍어 먹어 보느라 나만의 확실한 풀이 체계가 없습니다. 시험장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 방식을 써야 하지?”라며 갈등하다 시간을 보냅니다.
- **KAOS 처방:** 이제 방황을 멈추고 \*\*[KAOS 핵심 알고리즘]\*\*으로 풀이법을 단권화하세요. 여러 도구 대신 ‘단 하나의 명검’을 제대로 휘두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 5. XTI - 통찰적인 효율 전략가 (별명: 잔머리 대마왕)

“가성비 공부의 끝. 적게 하고 많이 맞힌다.”

- **공부 DNA:** 지능이 높고 핵심을 파악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굳이 다 읽지 않아도 답이 나올 곳을 본능적으로 찾아냅니다.
- **수능 망하는 이유:** “디테일의 저주.” 자기 실력을 과신해 지문의 세부 정보를 무시합니다. 평가원이 파놓은 미세한 ‘단어 바꾸기’ 함정에 가장 잘 걸려드는 유형입니다.
- **KAOS 처방:** 당신의 직관을 뒷받침할 \*\*[KAOS 정밀 필터링]\*\*이 필요합니다. 날카로운 통찰력에 치밀한 근거 확인 습관을 더해 ‘실수’라는 변수를 제거하세요.

#### 6. XPI - 감각적인 직관 탐구자 (별명: 작두 탄 찍신)

“지문은 읽는 게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 **공부 DNA:** 언어적 감각과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특히 문학 지문에서 화자와 물아일체 되어 정답을 골라내는 ‘찍기’의 달인입니다.
- **수능 망하는 이유:** “주관적 소설.” 지문에 없는 내용을 자신의 상상력으로 채워 넣습니다. “이 상황이면 당연히 슬프겠지?”라며 선지를 고르지만, 정답은 철저히 객관적 팩트에 있습니다.
- **KAOS 처방:** 당신의 풍부한 감성을 제어할 \*\*[KAOS 객관화 코드]\*\*를 주입해야 합니다. ‘느낌’이 아닌 ‘증거’로 답을 고르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점수는 늘 낼을 떨 것입니다.

#### 7. XTE - 거침없는 실행 중심가 (별명: 무지성 닥공리)

”안 되면 될 때까지 푼다. 양으로 승부한다.”

- **공부 DNA:** 압도적인 학습량을 자랑합니다. 하루에 모의고사 3회분을 풀어내는 무시무시한 실행력을 가졌습니다.
- **수능 망하는 이유:** ”성찰 없는 반복.” 틀린 이유를 분석하기보다 ”다음엔 맞히겠지” 라며 새 문제집을 넘깁니다. 고질적인 사고 오류가 고쳐지지 않아 공부량에 비해 성적이 정체됩니다.
- **KAOS 처방:** 무의미한 양치기를 멈추고 \*[KAOS 사고 교정 클리닉]\*\*을 받으세요.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틀리는지’ 그 회로를 뜯어고쳐야 점수가 오릅니다.

## 8. XPE - 유연한 아이디어 팀협가 (별명: 산만한 비글)

”공부는 즐거워야 한다. 새로운 게 제일 좋아.”

- **공부 DNA:** 창의적이고 호기심이 많습니다. 한 가지 방식에 얹매이지 않고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바라보는 유연한 사고의 소유자입니다.
- **수능 망하는 이유:** ”집중력 휘발.” 긴 지문을 읽다 보면 어느새 딴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다 읽고 문제를 풀려 하면 앞 내용이 기억나지 않아 다시 지문으로 돌아가는 무한 루프를 반복합니다.
- **KAOS 처방:** 흘어지는 집중력을 붙잡아줄 \*[KAOS 지문 구조화 매핑]\*\*이 필수입니다. 읽으면서 머릿속에 지도를 그리는 법을 배워야 읽은 내용이 ‘포맷’되는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가 진단 결과는 당신의 온전한 실력이 아닙니다.

자가진단은 당신이 ‘원하는 모습’이고, 시험지는 당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잠재적 학습 DNA 확인 CODEX 21문항을 통해 당신의 ‘잠재적 아키타이프’가 도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온한 책상 위에서 당신이 생각하는 당신의 모습일 뿐입니다.

하지만 수능 시험장이라는 극한의 압박, 80분이라는 잔혹한 시간 제한 속에서 당신의 뇌는 평소와 전혀 다르게 폭주합니다. 평소에는 STI였던 당신이, 실전에서는 SPI가 되어 1번 문제부터 뇌 정지를 일으키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봐야 합니다.

당신이 진짜 1등급의 DNA를 가졌는지, 아니면 위기 상황에 무너지는 오류 덩어리 인지는 설문지가 아니라 ‘실제 시험지 흔적’이 말해줍니다. 시험지에 남겨진 당신의 펜 끝, 머뭇거린 흔적, 잘못된 판단의 기록... 그 오류 로그를 뜯어보기 전까지는 당신의 진짜 코드를 알 수 없습니다. 설문지가 아닌 ‘시험지’로 당신의 진짜 정체를 확인 하십시오.

[KAOS 연구소 오픈프로필]

<https://open.kakao.com/me/kaoslab>

[KAOS 연구소 블로그]

[https://blog.naver.com/tms\\_1226](https://blog.naver.com/tms_1226)

